

국내 전문 PLANT 시공, 관로공사부분 최고의 기술력 보유업체

[토성공영주식회사]



1979년 토성건설사 설립을 시작으로 1989년 3월 토성공영주식회사로 법인 전환하여 현재에 이르기 까지 오로지 27년간을 전문 plant, 장거리 관로공사 외길만을 고집하여 걸어온 기업.

국내 관로공사 부분 최고의 실적과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전문단종업체가 바로 토성공영(주)이다.

이 회사의 주력관로공사는 광역상수도공사, LNG주배관 공사 및 송유관공사, 지역난방 열배관 공사 plant 공장 신축공사 등으로 이 분야에서 만큼은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오랜 기술력 축적을 바탕으로 각 현장 일선에서 값진 땀을 흘리고 있다.

또한 현재 대표이사(조재근)은 서울시 기술직 공무원, 범창기술사무소 ENG 설계, 감리, TAB, 전문 엔지니어링 회사를 설립·운영했으며 90년 이 회사 부친의 사업을 승계 받아 풍부한 현장 실무경험을 체험하고 2000년 12월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기계분야 기술사로서 한국기술사회 공조분회 위원, 대학교수, 연구기관 자문위원 대한설비협회위원 등 명실상부한 기술자로서 항상 배우고 연구하고 있는 대표이사를 모신 것도 이 회사의 자랑거리중 하나이다.

회사 소개

토성공영(주)는 서울 구로구 고척동 76-65에 소재 하며 임직원 100여명에 연간 매출액 400억 정도의 중견 중소기업형 전문 건설업체이다.

관련된 전문 건설업종으로는 기계설비업(도급한도액 132억)외 5종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 도급한도액은 505억의 능력을 보유한 업체이다.

계열사로는 시흥시 정왕동 1379번지의 시화공장(sus탱크류, 칼럼, 리액터등), sus철물제작공장으로 1,200평 부지에 시설 운영되고 있으며 천안시 신방동 534-1의 천안공장 및 야적장이 1,800평 부지의 공장 과 야적장에 건설용 자재 생산 및 보수 보관 관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업종 및 자본 다변화의 일환으로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소재하는 미즈맘 병원이 있으며 여성전용병원으로 병상수 83베드, 지상10층, 지하2층, 연건평 2,000평 규모로 지역발전에 많은 역할과 더불어 운영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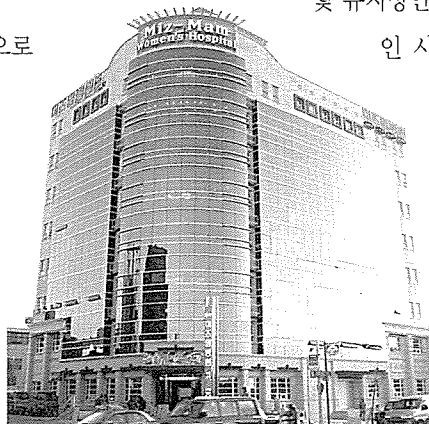
다. 임직원들의 후생 복지 등을 고려하여 휴식 휴양 등의 목적으로 연수원 겸 지역유명 호텔로 경북 영덕군 장구면 삼사리의 삼사해상공원내에 오션뷰호텔(28객실)겸 연수원 120평을 운영하고 있어 임직원들의 휴가 및 연수원 겸용으로 운영 중이다.

현재의 공사시공 여건과 미래대응안

토성공영(주)은 지역난방 열생산시설 및 열배관 시설공사에 종합건설사의 하도급형태로 또는 발주처로부터 직접공개입찰 방식으로 수주하여 참여하며 한국 지역난방협회 정회원사의 발주공사분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사내적으로는 품질향상, 원가절감, 기술향상 및 유지방안, 안전사고 대책 등 미래지향적

인 사고로서 월별, 분기별로 연구발표 및 대책 등을 토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지역난방 단열이중관 배관 및 열생산시설 연간 시공 실적도 연평균 130억 정도



의 시공실적 및 능력을 보유하여 동종 경쟁사에 비하여 경쟁력이 있다는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2010년대를 향후 대책으로는 유가상승 및 인구 고밀도화에 따른 에너지의 고압력화, 고순도화를 요구하는 것과, 환경개선책을 적극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측 해 보고, 집단민원 발생 및 불편 발생 해소 요구건수 증가로 인한 대책안을 강구하고 있다.

지역난방 및 지역냉방을 확대보급 측면에서 볼 때 소규모 집단에너지 생산, 공급망 시설 확대 공급, 지역난방, 냉방 배관망 시설 공급, 하수종말처리 시설 및 분류하수관의 다양화 및 확대공급, 발전에너지 Saving효과 상승방안 (발전System 변화)을 강구하고 있고, 보다 복잡 과밀해지는 도심 도로망에서 지역냉난방을 시공 유지관리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타 시설물 간섭으로 인한 PIPE 관통 공간 확보 어려움 타 시설물 훼손 우려, 공사기간 동안의 원활한 교통소통 불편 해소 방안 공사기간 가능한 축소 및 우회로 확보, 공사 주변 상가지역 주민, 상인들의 집단 민원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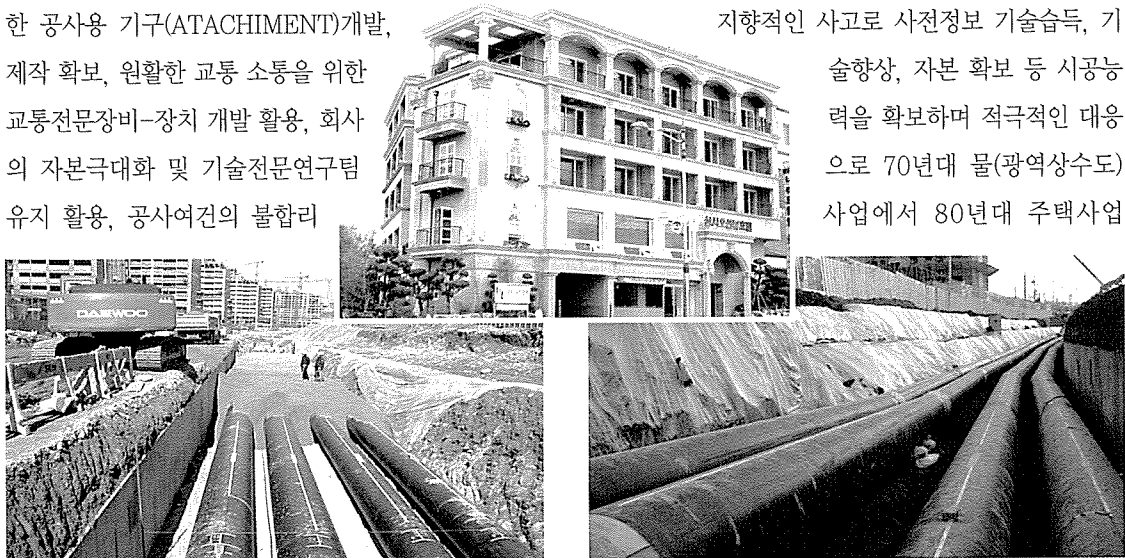
상기 문제들을 감안할 때 토성공영(주)에서의 Knowhow 확보 방안 강구로 GPS도면 확보 및 사전 정보, 현장조사와 더불어 전문장비류 및 다양한 공사용 기구(ATACHIMENT)개발, 제작 확보,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교통전문장비-장치 개발 활용, 회사의 자본극대화 및 기술전문연구팀 유지 활용, 공사여건의 불합리

와 공사단가 덩핑으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의 대책 안으로 실적-능력을 고려한 지명 경쟁시 상위 위치확보를 위한 연구 및 실행방법을 활발히 개발연구 진행 중이다.

현대사 변천에 능동적 대처

또한 토성공영(주)는 80년대부터 2006년까지 현대사에서 인구 도심화와 인구 밀집화 산업의 근대화에 의한 자연 발생적인 인구유입, 이동, 밀집화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많은 불합리한 요소로 물 문제, 에너지 문제, 환경문제를 인구 밀집화에 따른 문제와 대응책으로 생활용수의 수질개선과 수요량 증가에 따른 다목적댐 건설 정수시설 및 장거리 관로형성, 소모 에너지량의 증가에 따른 고압 고순도와 집단화, 고급화에 따른 지역난방, 열배관, LNG공급시설, 석유류 공급 및 저장시설, 필연적인 환경오염 원인의 대기, 수질, 토질 오염으로부터 인위적인 환경 개선책 마련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장 및 분류하수관, 각종 집진시설 및 도심 대기 개선책, 토질환경 개선책 등 국가적인 정책 사업으로 년차별 해소, 개선사업으로 지향해 왔던 각종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왔다. 또한 미래

지향적인 사고로 사전정보 기술습득, 기술향상, 자본 확보 등 시공능력을 확보하며 적극적인 대응으로 70년대 물(광역상수도) 사업에서 80년대 주택사업



(APT시공) 90년대 LNG, 송유관 사업에서 점차 순도와 고압력화 높은 기술능력을 요구하는 집단에너지 생산시설 및 열공급망 배관공사에 이르기까지 유효적절하게 능동적인 자세로 회사를 유지 발전시켜 왔다.

열배관 공사의 전문시공한 PLANT공사

토성공영(주)는 80년도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주한 평택 LNG인수기지 Governer System과 STARAGE TANK 및 LNG 주배관공사를 시작으로 수도권주배관(한양,삼환), 경인주배관(삼환,동부), 영남권주배관(대우,한국중공업), 남부권 주배관(동아, 쌍용), 서해권 주배관(대아,대우), 수도권 LNG 배관망 사업등의 수많은 LNG 주배관 공사에 참여해 왔다. 한국전력 인천화력(LG), 삼천포화력(쌍용), 울산복합화력(대우)등의 발전소 공사에도 동참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향상시켜 왔다.

또한 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한 수도권 광역상수도 3, 4단계(동부,SK,두산), 한강하류권 광역상수도(남광), 군장공업용수(동양), 주암댐광역(SK), 보령댐광역(대아), 전주권광역(삼성,두산,국제), 아산광역(쌍용,기산), 수도권광역(극동), 녹산광역(쌍용), 가평광역(극동), 이의 지하터널 대형 관부설공사(쌍용,극동),등 수많은 관로공사에 참여 명실상부한 대형관 장거리 관로공사에 독보적인 아성을 쌓아 왔다. 대한 송유관공사 발주 장거리 관로공사(LG, 한양, 삼부, 대아)에도 참여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다.

이러한 plant 장거리 관로공사를 통해 이 회사에 축적된 경험과 기술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연구 분석을 통해서 이 회사만의 노하우를 개발 지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1. 오로지 한길 PLANT 관로공사 집중 투자

그동안 이 회사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 보면 참으로

많은 변화의 유흥속에서도 전문기술 plant공사의 외길만 고집해 온 망부석 같은 세월이 27년이나 흘렀다. 때론 건설공사 수주물량 감소로 인해 회사 수주운영에 어려움이 처했을 때마다 업종변경 등 수많은 고민을 해왔지만 구조조정 등 내실 다지기를 반복하여 오뎅이처럼 일어서기를 반복, 끊임없는 관로공사에 집중 투자하는 투지를 발휘하여 현재 plant공사 부분 200억 원 정도의 매출 실적을 수년간 유지해 오고 있는 기업이다. 여기에는 토성공영(주) 대표이사(조재근) 및 임직원 일동의 수많은 땀과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날 관로공사부분 최고의 실적 및 기술력 축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에는 회사 시공매출의 50% 정도가 지역난방공사에 있을 정도로 수년간 지역난방 열배관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 상식이 진리이고 정법이 비법이다.

이 회사에는 대표이사(조재근)의 특별한 경영방침이 있다.

“상식이 진리이고 정법이 비법이다”라는 “상정비법”이라는 표어가 있다.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는 편법을 부리지 않고, 만인이 공감할 수 있고 천인이 참여 할 수 있는 시공이야말로 가장 합리적인 시공이고 품질 및 시방의 정도를 따르는 것이 비법이라는 것이다.

어찌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간단하게 보이지만 이 ‘상정비법’이 탄생하기 전까지 건설공사의 시행착오 및 회사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왔다는 것이다. 회사는 품질로 명예를 지키고, 만인이 인정해 주는 상식적인 공사를 통해 불필요한 부실공사 및 하자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가투입을 절략함으로써 회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사실에 대해 임직원 일동의 자부심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회사의 기술력 축적에도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해석되었다.